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95 부활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와 각종 행사로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아멘찬양대의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로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지 사흘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다. 온 그리스도인들이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부활절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충현기도원에서 금식부흥회를 갖고 또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전 교인이 금식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그 후에 맞는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맞고 있다. 부활주일을 맞으며 교회는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로 드리며 부활을 맞는다.

기쁨과 감사를 전한다. II부 예배에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떡을 손에 들고' (눅 23:13-35)라는 제목으로, I, III, IV부 예배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 (요 20:11-18)란 제목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아멘찬양대가 부활절 축하음악예배의 순서를 맡아 David T Clydesdale의 I'm을 연주하며 부활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게 된다.

각 교회학교에서도 부활절 달걀콘테스트, 연주, 찬양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가지며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청년2부는 집회시간(오후 12시 30분, 교육관 407호)에 심상범 교수(충신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부활절 기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란 제목의 특강도 있다. 영아부도 부활절을 맞으며 구명신 명예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영아부실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아울러 우리의 삶의 근본이며, 우리 생활의 중심이신 주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하

고 책임있는 자세와 진지한 삶으로서의 추구를 다짐하는 일들이 각 개인마다 있어야 할 것이다.

교역자 인사이동

대학부 부감도 교체

교회는 부목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 및 새로 온 부목사 등으로 교역자 인사 이동을 실시했다.

1. 사임

임성환 목사 / 12교구 및 사랑부 지도 (브라질선교사, 동도교회 지원)
김용기 목사 / 충현기도원 지도 (해외 유학 준비)

2. 임명 및 이동

박경한 목사 / 명, 12교구 및 사랑부 지도
김동석 목사 / 명, 청년1부 부지도
최영찬 목사 / 명, 교육연구소 부지도
김정순 전도사 / 명, 소망부 부지도
정복인 전도사 / 명, 소망부 부지도

또한 교회는 교회학교 대학부 부감의 전명옥 권사를 면하고 강순희 집사를 부감으로 임명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부활절 메시지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핵심문제

저는 부활의 이 아침을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마도 이 도전은 여러분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핵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생사는 바로 이 부활신앙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과학적 증명이나 역사적 조사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은 도덕적으로 위대한 분들의 기록이고, 또 이 부활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산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견들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런 이견들은 모두가 허황된 추측이요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첫째로 빈 무덤입니다. 둘째로 많은 목격자들의 명단입니다.(고전

15:5-8). 셋째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요 6:39,40; 요 11:25)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기까지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신 사실입니다. 넷째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비겁하던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져서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도 카타콤에서 300여년간 이 부활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숨어 살아왔고,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찬들과 손을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단을 내리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성장은 물론이고 오늘의 교회가 뿔뿔 속에서도,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것을 증거해줍니다. 분명히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과 만나 이 광야 세상에서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을 없는 자가 되게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8)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신봉자가 되어 이 생명의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전 교구 집중 지역전도 실시

4월 21일(금) 구역예배 후 일제히 전도
5월 7일, 6월 4일(주일)에는 전 교인 노방전도

전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16일 3일간 각 교구 여전도회가 동원되어 교회 주변 1·2·3교구에 대한 집중전도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4월 21일(금)에는 전 교구가 각 교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 구역예배를 드림에 따라 각 교구의 각 구역은 4월 21일(금) 구역예배를 마치고 구역식구들은 2인 1조가 되어 지역내의 태신자를 함께 심방하며 또한 인근 주민에서 전도하게 된다.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각 교구에서는 태신자 카드를 가능하면 해당교구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태신자를 집중적으로 전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에 함께 나가 전도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동안 3차례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

면서 각 개인이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면에 집중했는데 이 방법과 함께 교회 전체가 실제로 전도에 참여토록 해서 각자가 품소 전도를 체험케 함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날 전도를 위하여 전도지를 준비하여 각 교구 간사에게 배부한다. 또한 5월 첫주일인 7월과 6월 첫주일인 4일에는 교구 연합도임 후 전교인이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노방 및 축호전도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 3월 14~16일의 교회 주변전도, 청년·대학부의 전도운동, 전 교구 구역별 전도 등은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 속에서 전도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2 ●

말세 인류에 대한 3대 경고

(계 14:6-13)

요한계시록 14장 6-13절에 보면 세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 인류에게 주시는 3대 경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 첫째 천사의 경고

6,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경고는 영원한 복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칭호를 준 이유는 이 복음이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효과가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이고, 영원토록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워왔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번째 경고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2. 둘째 천사의 경고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했는데 본문의 바벨론은 물론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바벨담은 어원이 같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바벨담을 쌓은 문화이고 탕자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이고, 우상숭배하는 문화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다름아닌 이 세상입니다. 여기는 666을 맞은 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무대인 것입니다.

첫째로 왜 하필이면 큰 성이라고 했을까요? 이 큰 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바벨론은 이 세상의 전체도 아니고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가장 작은 별중의 하나에 불과한 지구의 일부일 뿐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히 교만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며 자신들을 크다고 보았습니다.

두번째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하고 과거형으로 두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작정된, 영원 속에서 보게될 때에 벌써 일어난 과거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 세상의 파멸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로 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을 포도주로 비유했는데 그 이유는 음행은 인간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에 취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 한 번 미치면 가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는 경고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술과 돈과 마약과 일과 도박과 섹스와 우상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간들을 취하게 만들고 인간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3. 셋째 천사의 경고

세번째 천사의 경고가 9-11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타락한 자에게, 우상에게 표를 받고 절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한 번 빠져들면 다시는 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보통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즉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아니한 독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나 사랑이 섞이지 아니한 진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일단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을 그때

여기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할 일이 없는 쉼이 아닙니다. 모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완성하고 나서 상을 받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위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땅과 대조된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과 함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는 섞인 것이 없는 냉혹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둘째는 10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약성경에 보면 셰올(Sheol)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음부라고 씁니다. 이 음부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65번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거하는 장소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지옥을 뜻하는 심판의 장소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하데스(Hades)와 게헨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는 26번 사용하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뜻으로 세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음부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게헨나는 공관복음과 야고보서에 12번 나오는데 항상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게헨놈, 즉 힌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쪽한 20M쯤 떨어진 힌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곡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쓰레기를 버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방신인 몰렉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쳤을 때, 특히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죽은 어린아이를 거기에서 버렸습니 다. 그래서 그곳은 화장터처럼 시체 타는 냄새와 쓰레기 타는 냄새가 뒤섞여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가르칠 때 시체장 교육적으로 힌놈의 골짜기에서 시체가 활활 타오르고 모든 것들이 타오르듯이 바로 그렇게 심판받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죽지않고 구더기 하나도 죽지않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에게 경배하고 666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세번째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에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도 쉴 수 있는 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밤이든 낮이든 쉬지 못합니다.

4.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첫째로 이 땅에서 인내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인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축복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내케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인내케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둘째로 13절에 보면 요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자급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좁은 의미는 순교자를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까?

본문에 먼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했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할 일이 없는 쉼이 아닙니다. 모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완성하고 나서 상을 받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위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땅과 대조된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과 함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세가 되면서 우상앞에 경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 맞는 부활절

이 유 점

<초등4부>

이제 새해가 태어난 후 11번째 맞는 부활절이 돌아왔어요. 부활절은 우리를 위하여 죄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만약 제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에게 “울지 마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하나 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마만은 지독하게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못믿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도마도 믿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처럼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글썄요. 그건 저

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여러가지 이적을 보이시며 계시다가 부활하신 지 40일만에 승천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가지만 곧 성령이 내려올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몇십가지 방언을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드리려 했어요.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칼럼 / 역심동에서

부활과 휴거

윤 성 철

(장로, 충동2부 부장)

‘소년과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다. 거짓말에 재미를 붙인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몇번 속은 마을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왔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 거짓말 소년은 결국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93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이 또다시 오늘(4월 16일) 부활절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여 다시 한 번 매스컴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휴거는 성경(살전 4:17)에 근거한 예정된 사건이다. 이를 교묘히 끌어 들여서 모일 모일이 휴거일이라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말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늑대가 온다는 거짓말에 한두 번 속았던 마을 사람들이 그 후로는 늑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못 믿어버린 것과 같이 기독교의 부활과 마지막 날에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사건을 의심케 만드는 어리석은 것이다.

기독교인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역시 휴거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으며, 휴거의 예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시는 환상적인 사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휴거의 예정을 믿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부활의 사실까지 의심케 만드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다. 세상 마지막 날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날을 인간이 알아냈다 함은 오만과 망상이 가득찬 자들이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부활과 휴거를 믿지 않으려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자세가 그저 각박한 세상에 사는 동안 복 많이 받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기 수양의 방편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죽어서의 천국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활이니 휴거가 있으리라 믿어지겠는가? 더욱이 거짓말하는 집단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데서 자칫 부활과 휴거같은 기독교의 핵심이 묻혀버릴 수 있다. 그로 인해 매스컴에 비쳐지는 광적인 모습들로 인하여 부활과 휴거에 대한 회의, 심지어 진정한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까지 기피하는 신앙의 낙약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믿는 자를 미혹케 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장난이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확신, 휴거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하고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한다.

<‘칼럼/역심동에서’는 박승준, 윤성철 장로와 김찬근, 장우현 목사가 3개월간 돌아가며 씁니다>

교회에서의 30대는 문제가 많다거나, 교회 내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로 보기는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한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졌다가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통하여 세상의 문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진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30대는 사회적으로는 직장과 사회생활 등 모든 세상 일에서 ‘일의 중심’에서 있고 승진이나 일의 분량, 위치면에서 교회에서의 신앙활동은 ‘남는 시간이 생기면’이라는 자세를 보일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30대의 교회학교인 청년2부에서의 성경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고 동시대 동연배끼리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깨어서 알게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우 목사님의 시편강해는 목사님 특유의 역양과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의 감동으로 천진난만(?)해지는 모습이 우리 30대에게 하나

님이 사랑의 메세지가 되어 다가온다.

한주 한주 시편강해가 진행됨에 따라 왜 이 시대의 악인(사기꾼)들이 성도들의 삶보다 더 번영을 누리는데 대한 통탄이라든가, 악인의 득세가 순간적이며,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하며, 환난과 고난 속의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알게 하신다. 또한 인간이 무엇이관대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등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하신다.

우리 부부가 3년전 찾은 청년2부에서의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특별한 배려였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투영하여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신앙의 체험으로 인도하신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든가, 요셉이 구원자로 나타나게 하신 시기라든가 우리 30대는 성경적인 30대에 관한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이 시기에 부모로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녀에게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느냐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늦춰서도 안되는 시기인것만은 틀림없다.

◀ 살며 생각하며 ▶

30대의 신앙생활

한 홍 연

(청년2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천년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무지한 저 사람들의 고함
사월의 봄바람 타고 오늘도 들려온다

덜시천대 꺾박받은 예수
머리들라 머리채 잡혀 씌운 가시관
침뱀은 얼굴 피멍든 두 뺨
모욕과 고난 역을하게 당하셨네

힘겨운 십자가 메고 끌려가시던 예수
현기증은 노란하늘로 핑돌고
벨라도의 내리치는 채찍 뱀같이 감기며
찢어진 상처상처 입을 벌려
붉은 피는 사랑으로 흘러내리네

가도 가도 먼 예루살렘 성밖
갈보리언덕 위에 놓인 십자가
하늘 향해 강제로 높힌 예수
못박히는 저 망치소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비명
골고다 언덕 뒤흘들며
하늘 가득히 세상에 메아리로 퍼진다

홍의 벗겨지는 수치
죽음 높이 들리어진 절끄러운 십자가
우리의 허물로 찢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함을 받으신 예수
채찍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징계 받음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
죄인 사하기까지 피와 물 다 흘리셨네

다 이루었다 구속의 승리 선포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
죽음과 어둠 삼일만에
간헐던 돌무덤 깨고 부활하신 예수
호젓한 엠마오 시골길
두 제자와 걸으시던 예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월의 봄빛으로 오소서 오시옵소서

김 운 섭 (집사, 초동3부 교사)

일만명이 한사람씩 일만 영혼 구원한다

예수사랑큰잔치 기도운동 각 직분 별 기도회 시작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주요 일정

- 특별새벽기도회 / 5월 22일(월) ~ 5월 26일(금)
- 초청전도집회 / 6월 7일(수) ~ 6월 9일(금)
- 예수사랑 큰잔치 / 6월 11일(주일) I~V부 예배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하루에 최소한 5분 이상씩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예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기도제목

-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교회와 개인이 부흥되게 하소서
- 태신자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모든 전도운동, 기도운동들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편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위원회는 전도운동과 함께 기도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각 직분별 기도일자를 정했다.

- ① 교역자
1일 기도회(4월 13일, 5월 18일)
새벽기도회(4월 12일, 19일, 26일)
2부 새벽기도회 후 베다니홀에서
- ② 교구장 · 지역장
4월 19일(수) 오후 8~9시
베다니홀에서
- ③ 부지역장
4월 19일, 5월 3일, 5월 31일
권사반 성경공부 시
- ④ 구역장
4월 19일, 5월 3일, 5월 31일
구역장 성경공부 시

4월 21일 금요일, 에바다부 수화찬양으로 함께

4월은 장애인의 달, 4월 23일은 장애인 주일

4월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달로 각 사회단체나 교회 등에서 이 날에 대한 많은 행사를 펼치며,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다소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교회학교 에바다부는 장애인의 달과 장애인 주일이 있는 4월을 맞이하여 전 교인이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격려를 위해 4월 21일(금), 금요일 집회 시 수화찬양을 하기로 했다. 또한 4월 20일(목) 오후 7시 총회 장애인선교협의회

의 주최로 개최하는 장애인선교 음악회가 갈릴리홀에서 열려 많은 장애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교회는 4월 20일(목)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실시되는 제1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김밥 2,000개를 지원키로 하고 마리아 여전도회가 이 일을 감당키로 했다. 각기 많은 일과 신경쓰는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정한 날만이라도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금주의 교회행사

1.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4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11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4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11교구가 시작한다. 11교구는 4월 24일(월) 오전 9시까지이다.

2. 예수사랑큰잔치 기도모임

- ① 교역자
4월 19일(수)
2부 새벽기도회 후 베다니홀에서

② 교구장 · 지역장
4월 19일(수) 오후 8~9시
베다니홀에서

③ 부지역장
4월 19일(수)
권사반 성경공부 시

④ 구역장
4월 19일(수)
구역장 성경공부 시
해당자는 잘 기억하였다가 꼭 참석해야 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신성중 목사: 4/17(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4/20(목) 성동 구치소 예배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시고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오케스트라 대원 및 고등부 교사 모집

찬양위원회에서는 주일 II부 예배에 봉사할 오케스트라 대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이며 기악 전공자로서 오케스트라 대원으로 봉사할 사람은 매 주일 오후 1시 연습실(본당 지하 1층 임마누엘홀)로 직접 찾아가거나 교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는 고등부에서 봉사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우리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교사양성부 수료생, 또는 교사양성부 수강 중에 있는 사람이면 된다. 희망자는 교회학교 고등부나 교회 교육국(교육관 103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한전도회연합회 4월 22일, 족구대회

요한전도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요한전도회 지회별 족구대회가 4월 22일(토) 오후 2시부터 우리 교회 본당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는 매년 모이는 대회로 금년에는 6회째가 된다. 더구나 금년에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6월에 열림에 따라, 모여 친교하며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새롭게 할 계기이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보며 신앙적 유익과 성도의 교제에 장으로 이용되는 <주간충현>과 <계간충현>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는 어떤 형식의 글도 되며, 모두가 함께 보고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글로 삶의 영역에서 보고 느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면 됩니다.

글의 분량은 원고지 4매~10매 정도(PC 사용시 A4 1매~1매 반)이면 됩니다.

제출장소는 선교관 303호 <주간충현>편집실 (전화 552-8200, 교환 348, 349)

직원모집

금번 충현교회 사무국에서는 인원충원에 따른 새로운 일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1. 사무직(서무, 구매, 기타)
2. 인원: 남 0명
3. 제출서류: 이력서 1부(사진첨부), 타교인은 세례증명서 1부, 운전면허 소지자
4. 기한: 1995년 4월 23일 한
5. 제출처: 552-8200(402)

가지고 계신 사랑의 빵(쌀)을 보내주세요

운동본부의 금년도 목표액은 21억

교회는 지난해 8월말, 사랑의 빵(쌀) 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랑의 빵(쌀) 저금통 2만개를 전 교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난해 연말에 1차 수거하여 사랑의 빵(쌀) 운동본부에 전달했지만 아직도 가정에 그대로 있는 사랑의 빵 저금통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 2차로 이를 수거하여 운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운동본부의 금년도 목표액은 21억이다. 이 돈은 모잠비크, 소말리아, 르완다, 수단에 긴급구호자금으로 쓰인다.

가정에 있는 사랑의 빵(쌀) 저금통을 모두 가져와 20,000개의 저금통을 모두 보내 선한 일에 적극 협력하자.

저금통은 다음 주일부터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